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 제 194 호

2018년 12월 1일

#### - 목 차 -

##### ■ 협회 소식

1. UNGC 신 연회비 정책 소규모 간담회 개최 (12/11, 12/21)
2.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 2차 세미나 개최 (12/13)
3. 제 3회 International Collective Action Conference: Evolution to Revolution 결과 공유 (11/14~15)
4. 2018년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포럼 결과 공유 (11/21)

##### ■ 본부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토대가 될 새 인권리포트 발간
2. 유엔글로벌콤팩트 싱가포르 협회, 탄소 가격 리더십 연합 공식 출범
3. 탄소-제로 성장을 위한 열쇠, 앰비션 루프(Ambition Loop)

## ■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3 – 건강한 삶과 웰빙
2. [SDGs 시장기회] 새로운 식단
3. [SDGs 솔루션] 빵으로 만든 맥주를 만들다

## ■ UNGC 회원 뉴스

1. 아시아 퍼시픽 지역회의 · 싱가포르협회 10주년 기념 서밋 결과 공유\_무역보험공사
2. 한국체육산업개발,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지속균형발전 동참
3. KT, 중동서 글로벌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
4. LH,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투자의사결정 방식에 사회적 가치 등 반영
5.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 취임 일성 '윤리·인권경영'

## ■ CSR 뉴스

1. 소비 주류 밀레니얼, 베이비부머랑 달라...기업 생존 열쇠는 CSR
2. 기업의 반부패 규제준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
3. 서울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부패방지 사업 추진
4. 대기업 사회공헌 30%나 늘었다
5. 더 나은미래가 뽑은 '2019년 제3섹터 키워드'

##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18년 연회비 납부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 협회 소식

## 1. UNGC 신 연회비 정책 소규모 간담회 개최 (12/11, 12/21)

UN Global Compact (UNGC)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UNGC 2030 Vision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 간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레벨 (Signatory 또는 Participant)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존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연회비 정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2019년부터 변경되는 신(新) 연회비 정책의 구체적인 도입 시점은 회원사 의견을 수렴 후 반영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정책의 보다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한 소규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가능한 일시에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옵션 1] 2018.12.11 (화) 16:00 - 17:30

[옵션 2] 2018.12.21 (금) 15:00 - 16:30

### <장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 본 간담회 대상은 매출액 500억 이상 기업입니다.

[<신연회비 정책 안내>](#)

[<간담회 신청 링크 바로가기>](#)

[<사전 서베이 바로가기>](#)

## 2.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 2차 세미나 개최 (12/13)

#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2차 세미나

2018.12.13 (목) 14:00-17:00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 초대의 글

지난 4월 19일 기업 반부패 경영을 위한 민관협력포럼을 국회에서 출범한 뒤, 포럼 창립 국회의원들 및 주최, 협력 기관들은 3회 이상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업인 대상 이번 2차 세미나는 기업 반부패경영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반부패, 불공정 거래, 내부통제 강화 및 법인 기소처벌 등의 주요 정부 관계자인 권익위,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에서 기업 반부패 정책 방향성에 관한 발표를 진행합니다.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주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공유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생태계 전환을 위한 금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 시** 2018년 12월 13일 오후 2시 ~ 5시

**장 소** 국회 9간담회의실

**주관기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 박찬대, 임종성, 제윤경, 홍익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현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한국투명성기구

**협력기관** Deloitte, BSI Group Korea

### 프로그램

시 간	세 셴	발 표 자
14:00-14:30	개회사/축사	UNGC, TI Korea, KoSIF, 참
14:40-14:50	주제발표 1. 정부의 반부패 정책	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
14:50-15:10	주제발표 2. 권익위 민간협의회 활동 소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김병섭 의장
15:10-16:10	부처별 발표 (각 20분)	공정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16:10-17:00	질의응답	(좌장: TI Korea 유한범 사무총장)



<참가신청 바로가기>

### 3. 제 3 회 International Collective Action Conference: Evolution to Revolution 결과 공유 (11/14~15)

스위스, 바젤 폴크스 하우스(Volkshaus Basel)에서는 2018 년 11 월 14 일부터 15 일까지 이틀간 제 3 회 International Collective Action Conference 가 개최되었습니다. 5 개 대륙 40 여 국 약 200 여명이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는 비즈니스, 정부기관, 공공기관, 법조계, 시민사회, 국제기구 및 학계 등이 참여해 부패를 금지하고 뇌물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첫 날 개회사에서 마크 피에스(Mark Pieth) 바젤인스티튜트 위원장 및 바젤대학교 형법 및 형사정책 교수는 “부패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한다. 부패는 수천 년 전부터 있었으며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영원한 숙제”라며, “세번째로 열리는 올해 컨퍼런스는 ‘진화에서 혁명까지’라는 매우 야심찬 제목을 가지고 있다. 본 컨퍼런스를 통해 깊게 생각하고 청렴성의 개념을 다시 바라보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며, 윤리에 대한 행동적 접근법 등 새로운 사회과학 개념에 대해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이튿날, ‘Collective Action: Are there success factors? Lessons from Integrity Partner Workshops’ 이라는 제목의 세션에 패널로 참가했습니다. 본 세션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브라질의 마리아 가브리엘라, 남아공 윤리위원회의 딘 로쏘 CEO, 이집트 주니어 비즈니스 협회의 쿠사이 살라마 프로젝트 디렉터, 그리고 청렴성을 위한 모임의 수잔 프리드리치 디렉터가 참여해 각국의 공동노력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이수란 과장은 2015 년 3 월부터 2018 년 3 월까지 진행된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민관공동노력 프로젝트 '페어플레이어클럽'을 소개했습니다. 3 년 동안 7 개 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외 6 개 지자체 및 지역상의, 그리고 7 개 주한 대사관 및 외국 상공회의소과 협력한 페어플레이어 클럽은 3 년간 21 회 세미나를 운영했으며 228 개 기업 및 기관의 서약을 얻어냈습니다. 이후 임팩트 프로젝트 서베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젬마 아이올피(Gemma Aiolfi) 바젤 인스티튜트, 컴플라이언스 대표는 본 세션을 통해 지난 2 월과 4 월 이집트와 바젤에서 각각 진행된 공동노력 워크샵의 결과를 담은 '[Anti-Corruption Collective Action: Success factors, sustainability and strategies Insights and recommendations from two workshops](#)'를 발표했습니다.

## <워크숍 보고서 27>



본 보고서는 다양한 국제 공동노력 실무자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험, 성공 요인 및 전략을 공유했던 최근 두 건의 워크숍을 기반으로 함.

첫번째 워크숍은 2018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집트 아스완에서 열렸으며, 두번째는 2018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됨. 워크숍의 두 가지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청렴성 이니셔티브 파트너와 다른 공동노력 이니셔티브들 사이에서 또래학습 (Peer learning) 촉진
- 반부패 공동노력 이니셔티브가 직면한 공통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성공 요인과 전략 파악

[-원문보기](#)



#### 4. 2018년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포럼 결과 공유 (11/21)



지난 11월 21일(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노사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한 '2018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포럼'이 전경련회관 토포즈홀에서 열렸습니다.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 실무진 및 유관기관 관계자 60명이 참석해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해외 진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우수사례', 길영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베트남의 노동환경 추세 및 컴플라이언스 유의사항'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CSR에 대한 법제화 및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며 “정부 CSR 전략 내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녹이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공헌을 넘어 인권, 환경, 반부패, 공급망, 책임투자 등 다양한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책임연구원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영국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2010)를 비롯해 프랑스, 인도 등 많은 국가에서 반부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도 글로벌 수준의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 ASEAN 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주요 반부패 법규와 기업 위반사례를 들어 기업이 현지시장 및 관습, 내재적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등을 파악해 부패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길영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자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은 베트남의 노동정책과 개정 노동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8년 새롭게 개정된 노동법의 내용(근로계약, 최저임금 등)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노동법 관련 애로사항 및 실제 대응사례를 설명했습니다.

길영민 변호사는 “베트남의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성향이 강하고,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해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며 “법체계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인권경영,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들(NGO, 소비자)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역시 제시된 규정 그 이상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인권, 노동, 반부패 분야를 비롯해 현지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오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문보기](#)

# 본부 소식

## 1.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토대가 될 새 인권리포트 발간



본 보고서는 전세계 인권 증진을 위해 기업 활동을 펼친 지역 협회와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들의 우수 사례를 소개합니다.

2030 의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인권영향을 적극 관리하며, 인권 침해에 대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전 규모, 부문, 지역을 대표하는 비즈니스들과 협력해 기업이 글로벌 및 지역수준에서 성공적인 파트너십과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참여에서 더 나아가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8 UNGC 이행 보고서(UNGC Progress Report)를 토대로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70 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된 <Human Rights: The Foundation of Sustainable Business>는 UNGC 각국 협회의 활동과 통찰력을 공유합니다. 본 자료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의 준수와 확산을 돕는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전세계 UNGC 회원들의 인권증진 우수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리세 킹고는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은 비즈니스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우리는 기업들에게 인권이 전략의 핵심에 자리하는 원칙 기반 접근 방식을 활용할 것을 권장해 왔습니다. 글로벌 목표(Global Goals)에 대한

의미 있는 기업 활동은 단순히 진입 지점을 찾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가치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무결성의 문화를 확립하고, 기업 관행을 보편적인 원칙에 맞춰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권 증진에 있어서 비즈니스가 기여한 바를 기념함과 동시에 인권 존중이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기 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중대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현대판 노예제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4 천만 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경제적 성별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27%의 기업만이 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위험 평가를 수행하며 17%만이 인권과 연계된 영향 평가를 진행한다는 2018 년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간된 <Human Rights: The Foundation of Sustainable Business> 간행물은 이제는 기업들이 공급망과 운영 전반에 걸쳐 인권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확대하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세계 인권 선언 70 주년에 이르기까지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이사회와 협력하여 인권 보호에 힘 쓰고, 교육 플랫폼에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등을 초청해 교육 세션을 주최하고, 인권 주제의 CE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등, 인권 분야에서 비즈니스 참여를 확장시키기 위해 펼친 노력을 재조명합니다.

[-원문보기](#)

## 2. 유엔글로벌콤팩트 싱가포르 협회, 탄소 가격 리더십 연합 공식 출범

싱가포르, 2018년 11월 19일 — 탄소 가격 리더십 연합(CPLC 싱가포르)의 첫 번째 공식 장이 오늘 글로벌콤팩트 네트워크 싱가포르와 탄소 가격 리더십 연합(CPLC)에 의해 개최되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CPLC 싱가포르는 2019년 싱가포르에서 곧 있을 탄소세에서 더 나아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내부 탄소가격 책정을 사용하여 민간 부문이 협력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5년 세계은행 그룹이 소집하고 지원한 CPLC는 야심 찬 탄소가격 책정을 통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PLC의 장기적인 목표로 탄소가격이 세계 경제 전반에 적용되는 가운데 CPLC 싱가포르는 글로벌적 대의를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국가기후변화사무국(National Climate Change) 대변인은 "싱가폴 CPLC의 출범은 시기적절하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같이 기후 관련 위험을 사전에 완화하는 비즈니스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긴급함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CPLC 싱가포르는 더 많은 기업들이 탄소가격 책정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투자 및 운영 결정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그에 따라서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룸(John Roome) 세계은행 기후변화담당 수석이사는 "최근 탄소세 도입을 통해 싱가포르 정부가 탄소가격 책정부문에서 아세안 지역을 이끌고 있다. CPLC 싱가포르는 민간 부문 및 정부 지도자들 간의 탄소가격 책정에 대한 대화, 지식 공유와 협력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는 깨끗한 투자와 배출량 감소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CPLC 싱가포르는 탄소가격 책정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를 중점에 두고 지식 공유, 목표 기술 분석, 공공 민간 대화 및 내부 탄소가격 책정 메커니즘 설정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리더십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이 장은 공공-민간 간 대화를 촉진하여 정책과 관련된 투입력과 자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CPLC 싱가포르는 회사가 우려를 제기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탄소가격 책정의 실행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심의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고 스위 첸(Go Swee Chen) 글로벌콤팩트 싱가포르 협회 회장은 "탄소가격을 책정하면 배출 감축을 시장 기반방식으로 접근 가능하다. 우리는 CPLC 싱가포르를 설립을 위한 탄소가격 책정 리더십 연합과 글로벌콤팩트 싱가포르 협회 간의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는 기업과 이해당사자를 소집하여 탄소배출과 관련 기후 문제에 대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델 관행을 공동 작업하고 선보일 수 있는 즉각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라드 메스트랄렛(G rard Mestrallet), CPLC 고위총회 공동 의장은 "탄소가격 책정의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 회사들은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탄소가격의 구현을 용이하게 하고 내부 가격 책정을 사용하여 미래의 기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정한 탄소가격 책정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를 구축함으로써 CPLC 싱가포르는 국가와 주변 지역에서의 저탄소 혁신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메스트랄렛은 SUEZ 의 회장이자 ENGIE 의 명예 회장이기도 합니다.

### 첫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쓰는 조직들을 위한 새로운 지속가능성보고 도구 개발

싱가포르 익스체인지의 최근 '동의 및 설명' 지속 가능성 보고 틀에 비추어 글로벌콤팩트 협회는 기업을 위한 책임 지수 커뮤니케이터(Responsibility Index Communicator for Enterprises, RICE)를 개발했습니다.

RICE 도구는 처음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쓰는 조직들, 특히 중소기업에게 지속가능성보고의 개념과 지속가능성의 다양한 국제 표준을 소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 노력들의 짙막한 묘사를 제공하고 책임있는 비즈니스 관행의 측정 및 개선 영역을 나타냅니다.

글로벌콤팩트 싱가포르협회는 보고서를 처음 접하는 조직들이 이러한 표준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도록 11 개의 국제 표준 및 프레임 워크를 간단한 도구와 언어로 통합했습니다.

바린더 싱(Varinder Singh), Sanmina 환경 엔지니어는 "지속가능성 보고를 처음으로 하는 입장에서 RICE 도구가 우리 회사의 지속 가능성 노력의 영향을 정량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것은 지속가능성 보고의 다양한 국제 표준에 대한 나의 관심을 자극했다"고 말했습니다.

CPLC 싱가포르와 보고 도구 RICE 의 출범은 제 10 회 글로벌콤팩트 싱가포르협회 서밋에서 고스위 첸(Goh Swee Chen)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테오 치 힌(Teo Chee Hean) 싱가포르 부총리이자 안보분야 조정장관과 리세 킵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리세 킵고 사무총장은 "민간 부문은 우리 시대의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해결방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에서 2030 지속가능한발전 의제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싱가포르협회와 아시아의 다른 지역 협회들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글로벌콤팩트 싱가포르협회 서밋: 가족경영에서의 스튜어드십 추진 방향 논의

스튜어드십 아시아 센터(Stewardship Asia Centre, SAC)는 *가족경영에서의 스튜어드십(Stewardship Principles for Family Businesses)* 지침을 발행하여 아시아 전역과 다른 지역의 가족기업들이 관리 체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가족기업의 성공,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업 활동, 관행 및 조직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를 정의하는 7 가지의 포괄적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지침은 글로벌콤팩트 싱가포르협회 서밋의 폐회식에서 옹 분 휘(Ong Boon Hwee)SAC CEO 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가족경영은 중소기업부터 산업과 국가 간에 운영되는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가족 경영은 대대로 부와 성장을 만들어내며 이러한 기업들은 품격 있는 유산을 남기고 지식창조, 경제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간과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SAC 는 아시아-태평양에서 성공적인 지속가능한 가족 기반 기업들,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기업들, 그리고 가족 경영 리더십의 전문가들을 SAC 활동에 참여시켜 왔습니다. *가족기업에서의 관리 원칙(Stewardship Principles for Family Businesses)* 지침은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가족 경영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요약하는 연구와 협의를 토대로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SAC 는 본 지침에 소개된 원칙의 사용을 촉진하여 기업들이 생각이 비슷한 다른 기업들과 협업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 3. 탄소-제로 성장을 위한 열쇠, 앰비션 루프(Ambition Loop)

다음은 리세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겸 사무총장, 나이젤 토폭(Nigel Topping), 위민 비즈니스(We Mean Business) CEO, 그리고 앤드류 스티어(Andrew Steer),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CEO의 공동 블로그 게시물입니다.



정부나 기업 혼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1.5 도(F 2.7 도)로 제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기업 지도자들과 정부 모두가 대담한 기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비즈니스 차원의 행동은 정부에게 자신감과 신뢰를 더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기후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제정하게끔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소개된 야심 찬 목표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입법안은 회사의 제로 탄소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결합하게 되면 긍정적인 선순환, 즉, 앰비션 루프(ambition loop)가 생기게 됩니다.

기업들은 이미 100 퍼센트 재생 에너지 참여, 에너지 효율 증가, 삼림 벌채 종식, 제로 카본 차량으로의 전환하는 등 [과학적 감축 목표\(science-based emissions reduction targets\)](#)를 추구하며 앰비션 루프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거의 모든 국가들이 초기 국가 기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후 솔루션에 투자해야 하는 궁극적인 명확성을 기업에 제공하는 국가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성장 목표에 대한보다 빠른 진전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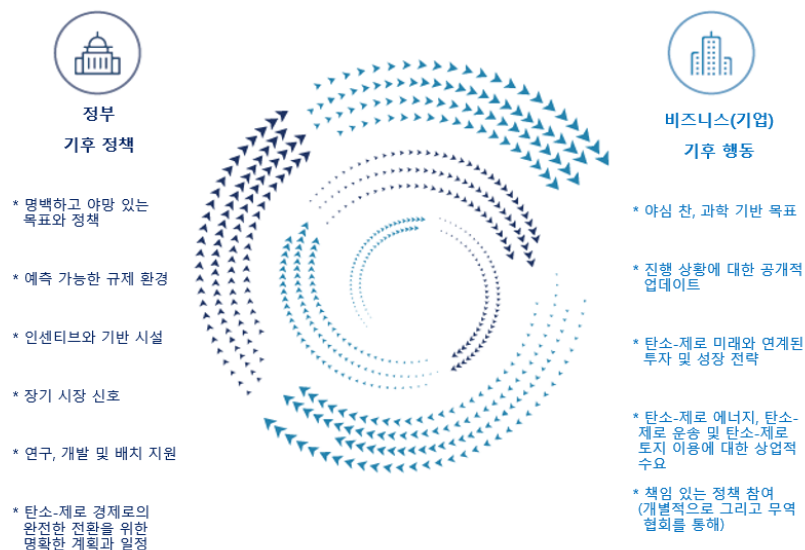
정부 정책과 민간 부문의 리더십을 가속화하고 강화하는 이 긍정적인 피드백 고리(loop)는 이미 많은 곳에서 기후 행동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엠비션 루프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실제 사례를 보는 것입니다.

중국을 오늘날 세계 전기 자동차 판매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2017 년 중국은 2020 년까지 500 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며칠 만에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또한 전기 자동차 판매를 늘리기 위한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시장이 전기자동차 판매를 요구할 때, 자동차 회사들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중국은 2018 년 첫 7 개월 동안 대체 연료 차량의 생산과 판매를 거의 두 배로 늘렸습니다.

2014 년에 인도는 2022 년까지 100 기가 와트의 태양 광 발전량을 개발한다는 대담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카르나타카 주는 2021 년까지 2GW 의 추가 태양열을 개발한다는 자체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태양열 발전에 대한 특정 요금은 태양광 가격이 광범위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여,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화석 연료로 만든 전기보다 경쟁력이 적고 덜 매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재생 가능 전기를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도 및 국제 기업 연합인 Green Power Market Development Group 은 규제 당국에 카르나타카의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요금 면제 일정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보증이 있을 경우, 태양광 프로젝트의 투자 유치와 가격 경쟁력 확보가 더 용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즈니스 부문에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Karnataka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은 요금 면제를 위한 명확한 10 년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기업이 가격 수준에 대한 명확성과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Karnataka 내 기업의 태양열 구매가 빠르게 증가하여 이후 4 년 동안 추가적인 태양광 용량이 0 메가 와트에서 1,000 이상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는 카르나타카가 인도에서 가장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개방성을 가진 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엠비션 루프"는 비즈니스 및 정부의 대담한 기후 행동을 지원합니다.**



반대로 대담한 비즈니스 행동은 정부가 더 야심 찬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극합니다. 70 개 이상의 유럽 기업들이 100 퍼센트의 재생 가능 전기로 사업을 가동시키기 위한 RE100 이니셔티브에 동참했습니다. 이 영향력 있는 그룹에는 네슬레, 다논, 이케아, 유니레버, BMW 와 같은 주요 유럽 회사가 포함됩니다. 미래의 EU 에너지 정책에 관한 결정에 앞서 진보적인 비즈니스들은 2030 재생 가능 에너지 목표의 달성과 기업의 재생 가능 전기 구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8 년 중반에 유럽연합은 비즈니스 지원에 힘 입어 2030 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이전 제안인 27 퍼센트에서 32 퍼센트로 늘렸고 회원국들이 기업의 전력 구매 계약에 대한 행정 장벽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목표를 강화시켰고 그에 대한 결과로 동반된 정책은 재생 가능 전기 시장에 대한 기업의 접근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앰비션 루프에는 하나의 완전한 원이 형성되어, 비즈니스 투자가 새롭게 정부 정책의 강화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을 만들 것입니다.



언급된 사항들은 기업과 정부가 서로 도와 기후변화 대응이 나선형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몇 가지 예 일뿐입니다. 앰비션 루프(Ambition Loop)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이외 사례 연구들을 포함합니다.

- 노르웨이와 캘리포니아는 강력한 요구와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 자동차 판매의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 명확한 자금 조달은 중국에서 전기 버스의 급속한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공급망 투명성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은 삼림 벌채를 줄이는 동시에 코코아 생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도자들은 앰비션 루프에 대한 글을 통해 국내 기후 정책을 알리고, 국가 기후 약속을 강화하고, 장기 기후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민간 부문 투자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동기가 있으며, 2030 기후 행동 목표가 제공할 수 있는 [26조 달러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원문보기](#)

# SDGs 소식

##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3 – 건강한 삶과 웰빙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The Blueprint for SDGs Leadership)은 17 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기업 리더십 사례와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영향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제시한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 중 하나입니다.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은 LEAD 기업, 유엔 기구, 시민사회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개발한 UNGC 각국협회 실무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영향력 등을 구체화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 How business leadership can advance Goal 3 on Good Health and Well-Being



세계의 주요 건강 우선순위에는 생식, 모성 및 아동 건강 / 전염성, 비전염성 및 환경적인 질환 / 보편적인 건강 보험 /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품질이 좋고 저렴한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한 모든 액세스가 포함됩니다.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및 호흡기 질환과 같은 만성적인 비전염성 질병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향후 20 년 동안 3 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빈곤선 이하로 밀어 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신 건강 장애, 말라리아, HIV, 결핵, 흡연, 교통사망 및 부상은 필수적인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개발 도상국에서 웰빙을 저해합니다.

SDGs 3 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모니터링하고,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책임 있는 주요 비즈니스 관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도적인

기업들은 전문성, 자원, 지식, 그리고 제품,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세계적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행동을 장려하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Business Action 1. 회사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직원들과 주변 지역 주민의 최상의 건강 상태를 보장**

#### **우수사례**

- ▶ 의류업체 A 는 주요 공급업체가 근로자 웰빙 프로그램을 제조 작업에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수립함. 이를 통해 근로자의 정신 건강 및 신체 건강을 향상시키고 보다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작업 환경을 조성함.
- ▶ 컨설팅 회사 B 는 직원들이 정신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조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무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함.



### **Business Action 2. 개선된 건강 결과를 위해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 개발 및 배포**

#### **우수사례**

- ▶ 건강식품제조업체 C 는 르완다의 한 공장에 투자하여 모성 및 아동 영양을 지원하는 강화 식품을 생산함으로써 어머니와 어린이에게 더 나은 건강 결과를 제공하고 아동의 발육 저해 문제를 해결함.
- ▶ 회사 D 는 저렴한 가격대의 최첨단 인공 림프를 개발하여 저소득층 공동체에 제공함



### **Business Action 3. 건강한 행동을 장려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다중 이해관계자의 이니셔티브를 주도**

#### **우수사례**

- ▶ 레스토랑 체인 E 는 검증된 영양사와 협력하여 저렴한 식사들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에 대한 조리법 및 가이드북을 개발. 이것은 소비자가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도록 권장함.



- 제약 회사 F 는 도달 범위와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WHO, 세계 은행, 보건부 및 다양한 NGO 와 협력하여 필요 지역의 사상충증을 통제하고 없애기 위해 10 억 개 이상의 치료법을 기증함.

-원문보기

## 2. [SDGs 시장기회] 새로운 식단

새로운 글로벌 식단은 혁신을 위한 기회입니다. 이는 고단백질 식물성 식품을 우리의 지역과 식단에 다시 가져와 지역적으로 생산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습관은 환경 및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이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 설탕, 육류가 주가 되는 식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균 몸무게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으며 건강 비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단에 더 많은 지역 농산물과 다양한 단백질 공급제를 보충하는 글로벌 식단 변화는 인간, 세계,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건강한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MARKET KEY NUMBERS



글로벌 식용곤충 시장은 2021년에 15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육류 대용식품 시장은 2016년부터 6.6%의 연평균복합성장률로 2022년까지 56억 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2016-2020년 사이에 글로벌 포장 비건 식품 시장의 예상 연평균복합성장률

### 미래를 위한 단백질(Meat for the Future)

육류는 맛은 좋지만, 지속가능성은 낮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몸에 좋은 식생활과 건강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단백질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통한 혁신적인 신제품의 출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식단에서 양질의 단백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단백질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을 우리의 지역과 식단에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식물 기반 단백질에 대한 수요는 미래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혁신을 위한 기회이자 참신함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플랑크톤과 곤충은 지속가능하며 단백질이 풍부한 새로운 육류 대체식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못생긴 음식 먹기

대형마트들은 독특한 무게, 사이즈 또는 생김새를 가진 식품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행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여러 다른 종류들로 이뤄진 식품도 맛만 좋으면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몇몇 농작물의 경우, 우리가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수확물의 최대 30%가 종종 생김새로 인해 농장을 떠나 쓰레기 매립지로 향하곤 합니다. 소매상, 정부, 학교들의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못생긴 음식 또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 A New Global Diet 새로운 글로벌 식단

새로운 글로벌 식단은 유명 셰프와 같이 변화를 창조할 수 있는 이들이 지역에서 지속가능하게 생산되는 식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식단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토착 식품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생물 다양성을 높임과 동시에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이들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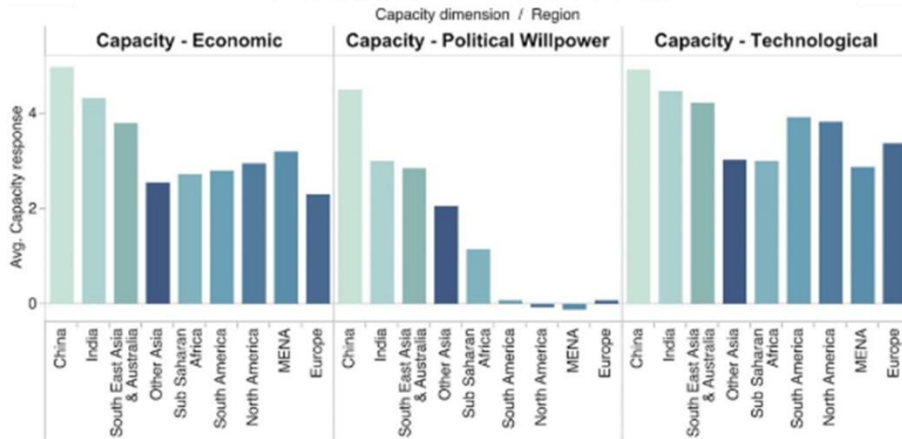
기업들은 콩나물, 마른 김, 식용 곤충과 같이 건강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 대체식품을 우리 식단에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식단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보다 다양하고 단백질 집약적인 식단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권장 양의 영양분을 소비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식품을 회의, 항공 운항, 그리고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기타 포럼에 기본 음식옵션으로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착 식물을 업계에 도입하고 고단백질의 육류 대체식품을 개발함으로써 건강한 경제와 함께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세계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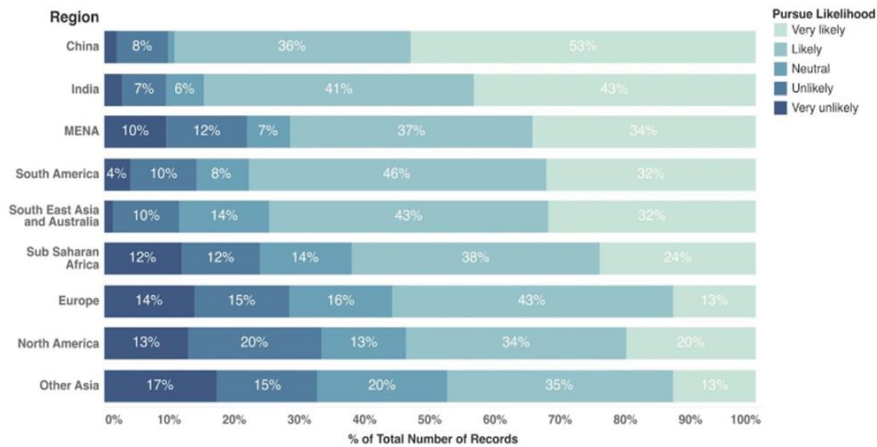
‘새로운 식단’ 시장 기회는 2015 년 조사된 현재 임박한 세계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시장 기회 중 가장 낮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크겠지만, 세계의 ‘새로운 식단’ 시장 기회에 대한 선호도는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다이어트(New Diets)’ 기회 추구 역량



2015 년 조사된 14 개의 다른 시장 기회와 비교했을 때 9 개 지역 중 6 개 지역에서 이 시장 기회를 추구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북미, 유럽, 다른 아시아, 메나(MENA)로 이루어진 4 개 지역에서는 본 시장 기회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의지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제한적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새로운 식단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지만, 이러한 기회를 추구할 정치적 의지력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도, 동남아, 호주 및 중국에서는 시장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회사는 “새로운 다이어트(New Diets)’에서 야기되는 사업 기회를 추구할 것인가?



이 시장은 2015 년 공공 및 민간 부문 5500 명 이상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습니다. 연구 회사인 YouGov와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원본은 Global Opportunity Report 2016에 기재되었습니다.

- [원문보기](#)

### 3. [SDGs 솔루션] 빵으로 만든 맥주를 만들다

Toast Ale 은 신선한 여분의 빵을 사용한 맥주를 양조합니다. 모든 수익금은 환경 단체 Feedback 에 전달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동참합니다.

Toast Ale 은 남은 빵으로 맥주를 양조하고 모든 수익금을 반음식물 쓰레기 기관 Feedback 에 기부하는 맥주 회사입니다. Toast Ale 은 현지 샌드위치 제조업체 및 베이커리 등에서 남은 신선한 빵을 맥아 보리, 홉 추출물, 효모, 그리고 물과 섞음으로써 훌륭한 맥주를 제조합니다.



빵이 맥주로 변신하는 여정은 현지 빵집이 여분 빵을 전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단계에서 빵은 잘게 썰려서 Toast Ale 의 파트너 양조장으로 이송되며, 이 곳에서 빵은 맥아 보리의 3 분의 1 을 대체합니다. 양조 과정에서 사용된 곡물은 이후에 쓰레기 매립지로 가는 대신 동물성 사료 용도로 보내집니다. 양조 과정 속에서 빵의 탄수화물은 효소에 의해 단당, 그리고 효모에 의해 알코올로 변합니다. 그 다음, 홉 추출물은 맥주 특유의 향기와 쓴맛을 위해 첨가되고 맥주의 보존을 돕습니다. Toast Ale 의 생맥주는 재사용 가능한 맥주통을 통해 펌, 바 및 각종 행사에 공급되며 파트너사인 Kegstar 에 의해 수집 및 리필됩니다.



## Why you should care

Toast Ale 은 음식물 쓰레기 방지와 자원 절약을 동시에 달성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오늘날 생산된 모든 음식의 3 분의 1 은 폐기물로 전락합니다. 영국에서는 생산된 빵의 44%가 주로 과잉 생산과 과잉 저장으로 인하여 버려집니다. Toast Ale 의 솔루션은 이렇게 낭비되었을 뻔한 빵을 사용하며 양조 공정에서 보리의 의존도를 감소시킵니다.

##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대략 한 장의 식빵이 한 캔의 Toast Ale 맥주를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Toast Ale은 여분 빵을 수집하고 활용도를 높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니다.

- [원문보기](#)

# UNGC 회원 뉴스

## 1. 아시아 퍼시픽 지역회의 · 싱가포르협회 10주년 기념 서밋 결과 공유\_무역보험공사

\* 해당 글은 무역보험공사의 행사 참관기입니다.

### Global Compact Network Singapore 서밋 참석

UN은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00~'15년) 종료 후 지속 가능개발목표(SDGs, '16~'30년)를 시행 중입니다. UN은 SDGs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불평등(성, 세대간) 및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향후 지속적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기업의 참여가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경영진의 의지와 관심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우선 순위 목표를 선별·이행해야 하며, 민간 금융권에서는 SDGs 독려를 위한 innovative financing 개발이 필요합니다.

최근 싱가포르의 지속가능경영은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속적 성과를 창출 중입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전세계적인 동조가 필수적이어서, 향후 싱가포르가 환경 이슈에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된 개발도상국, 선진국간 중재자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부총리는 환경 훼손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비용을 유발 하며, 환경 보존 과정에서 녹색산업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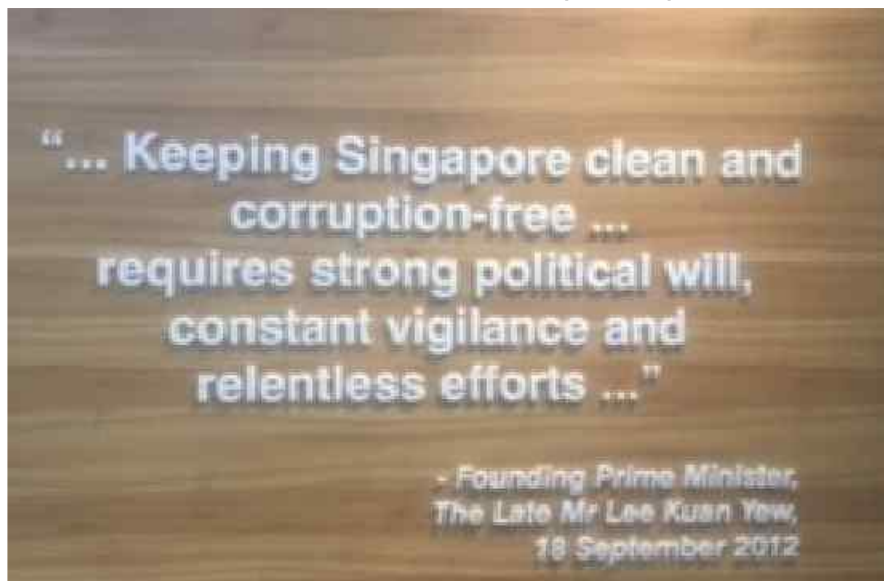
### □ 싱가포르 부패 조사국 방문

- 일시: '18.11.20 09:00~14:00
- 주요내용: 싱가포르 부패 조사국 전시관, Symantec Singapore SOC 방문

싱가포르 부패 조사국(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은 총리 직속기관으로 '60년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 권익위와 달리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영국, 일본 식민지 해방 직후인 '40-'50년대만 해도 부패가 만연했으나, 부패 척결을 내세운 인민행동당 소속 리관유 총리의 집권 이후 부패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월급 대비 사치로운 생활을 하는 공무원의 행태 또한 일종의 부패로 간주하였으며, 공무원의 월급을 민간수준까지 상향 조정 하여 공공분야의 부패 취약 요소 제거한 것이 특징입니다. 리관유 총리의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 및 이에 비례하는 부패 조사국의 막강한 권한 행사로 싱가포르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안정적으로 상위권을 기록 중이며, '17 년도에는 6 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51 위)

#### 리관유 총리 부패척결 의지('12.9.18)



#### CRHC(부패 조사국 전시관)



## 2. 한국체육산업개발,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지속균형발전 동참



-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최윤희)은 23 일 유엔 산하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 한국체육산업개발이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해 지속발전과 인권에 대한 동참을 선언한 것임.
-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에 앞서 유엔글로벌콤팩트 핵심 가치중 하나인 '인권' 존중의 철학을 경영이념에 담아 인권경영 지침을 제정하고 내부 임·직원간의 상호존중 뿐만 아니라 외부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평등하고 공정한 관계 형성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최윤희 대표이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이 신뢰와 존경받는 조직으로의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사회 상생발전 기여, 안정적 노사관계를 통한 성숙한 기업문화 정립 등 경영활동 전반에 지속 가능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은 "국민의 스포츠 · 문화 참여를 선도하는 종합전문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의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한국체육산업개발과 보다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진취적인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협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원문보기](#)



### 3. KT, 중동서 글로벌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



- KT 가 18 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 코르파칸에서 샤르자 인도주의센터와 함께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T 가 해외에 스마트팜을 조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임.
- 사막기후로 인해 채소 재배가 쉽지 않은 중동 지역에 KT 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선보였음.
- KT 는 중동 진출을 시작으로 척박한 환경 때문에 농업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여러 지역에 첨단 ICT 솔루션을 적극 공급하겠다는 계획임.
- 이번 출범식에는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해 전영욱 주두바이 한국총영사, 김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DEBC) 센터장 등 한국 측 관계자와 샤르자 통치기구 부의장 셰이크 사이드 빈 사크르 빈 술탄 알 카시미, 샤르자 공주이자 SCHS 센터장 셰리카 자밀라 등 현지 관계자 및 장애인 100 여 명이 참석했음.
- 황 회장은 "대한민국의 ICT 솔루션을 접목한 글로벌 1 호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이 UAE 장애인들의 재활 및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KT 는 UAE 스마트팜 개소를 시작으로 척박한 중동 지역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ICT 솔루션을 적극 공급하는 한편 ICT 에 기반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국제사회에서 인지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전했다.
- [원문보기](#)



#### 4. LH,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투자의사결정 방식에 사회적 가치 등 반영

##### LH 주택사업 투자의사결정 평가항목

LEVEL 1	LEVEL 2	LEVEL 3
공공성	· 사회적 가치 기여도	· 정부정책(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및 LH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 일자리 창출 기여도 · 지역사회 파급효과
	· 주거복지 기여도	· 주거안정성 · 주거비부담 · 주거수준
사업성	· NPV	· 경영계획 · 현금수익분석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규 주택사업의 투자의사결정시 공공성 지표를 도입한다고 25 일 밝혔음.
- 투자의사결정 방식에 사회적가치, 주거복지 기여도와 같은 공공성 지표를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기관 중 LH가 처음임.
- 이번 LH 형 사업시스템 도입으로 공공지원이 절실한 상황 임에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규 주택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LH 는 주거불안, 고용위기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올해 초부터 내·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토대 마련에 주력해왔음.
- LH 는 제도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미비점을 분석하고, 현재 전사적으로 추진 중인 사회적 가치 구현 실행과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박상우 LH 사장은 “공사의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경영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이 효율성 중심의 사업시스템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음.

- [원문보기](#)

## 5.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 취임 일성 '윤리·인권경영'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16 일 용인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과 외부 협력업체 관계자 2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인권경영 워크숍을 개최하고, 윤리·인권경영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음.
- 이날 김창섭 이사장은 전 임직원을 대표해 윤리·인권 중심의 경영을 최우선으로 실행하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선포했음.
- 김창섭 이사장은 “내부 임직원간 상호존중 뿐만 아니라, 민원인 등 외부고객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비로소 행복하고 따뜻한 직장이 될 수 있다”며 “갑·을 관계를 떠나 평등하고 공정한 관계를 유지해 신뢰와 존경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 에너지공단은 윤리·인권경영 선포문에 ▶투명·청렴한 업무수행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규범지지 ▶인권침해 및 차별방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과 균등한 기회 보장 등을 담았음. 아울러 향후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내외부 관계자 의견 수렴 등 윤리·인권경영 체계를 정비해나갈 계획임.
- [원문보기](#)

# CSR 뉴스

## 1. 소비 주류 밀레니얼, 베이비부머랑 달라...기업 생존 열쇠는 CSR



산업 > 일반

### "소비 주류 밀레니얼, 베이비부머랑 달라...기업 생존 열쇠는 CSR"

[착한기업, 세상을 바꾼다@][인터뷰]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기업, 사회적 가치 만들면 실적도 개선 '선순환'...CSR 경영에 완전히 녹아들어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8-11-22 11:00 송고

**포인팅** 10년 전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인류 경제사의 대전환점이었다. 윗가는 '아류파이(Occupy)'를 외친 시위대에 점령했고, '신(新)자유주의'는 파산을 고했다. 기업도 큰 위기를 맞았다. 돈벌이에 머물러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환경 문제를 방관한 원흉으로 지목됐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4.0' 시대가 열린 배경이다. 기업이 경제적 가치(이익)만 좇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사회적 가치'가 화두다. 본인을 통해 기후변화·빈곤·환경오염·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내외 기업들의 노력들을 짚어본다.



- 박 사무총장은 먼저 CSR 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상을 기업의 주 고객이자 소비 주역인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1980 년대 초반~2000 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의 등장 등 소비자들의 변화에서 찾음. 고객들이 과거처럼 '싸고 편리한' 제품을 선호하지 않고,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임.
- 그는 "기존의 '베이비 부머'(1946~65 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 세대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해 사회에 공헌한다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주류인 밀레니얼 세대는 기업의 노동 착취 여부나 공정무역에 관심을 갖고 투명한 생산 과정을 거친 제품을 구매한다"고 함. 소비층의 인식이 바뀌면서 사회 문제에 소홀한 기업은 고객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얘기임.
- 그는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단순한 '지출'로 여겼던 것과는 달리 CSR 을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함. 그는 "사회적 책임을 높일수록 탑라인(매출) 자체가 늘어나게 되고 바텀라인(이익)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며 사회적 가치 창출로 실적을 끌어올린 유니레버의 실사례를 들음. 그는 "폴 풀만 유니레버 CEO(최고경영자)를 직접 만나 보니 'CSR 에 방점을 두고 기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매출이 줄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더라"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함.

- 국내에서도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본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CSR 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음.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 변화(딥체인지)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SK 그룹이 대표적임. 최태원 SK 회장은 올해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본업과 사회문제 해결을 연계한 일대 혁신을 추진 중임. 박 사무총장은 "국내에도 '지속가능보고서'를 만들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이 150 곳이 넘을 정도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SK와 LG, KT 등을 언급함.
- 다만 박 사무총장은 "국내 기업의 경우 CSR 을 전담하는 각종 부서들이 존재하지만 근본적인 경영 활동과는 유리돼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사업 기획 단계부터 원자재 구매와 생산, 판매 후 애프터서비스(AS)까지 모든 경영활동에 CSR 이 녹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그는 "기업들이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사회의 모습"이라며 "경영진, 투자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인식을 바꾸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함.

- [원문보기](#)

## 2. 기업의 반부패 규제준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Live 중기  
산업뉴스

**기업의 반부패 규제준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과거 반부패행위도 해외진출에 걸림돌...기업들 리스크 관리해야

기사입력 2018-11-21 19:19

영국계 대형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은 중국내 의사·병원직원·의료기관에 자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6년여 간 약 30억위안 규모의 뇌물을 700여개 여행사를 통해 전달했다. 뇌물제공 후 판매량이 늘어났고, 다른 국가보다 중국에서 7배나 비싸게 약값을 책정했다.

이를 적발한 중국당국은 영국인 마크라일리 GSK중국지사장과 총괄자문을 비롯한 고위관리자들에게 기업범죄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했다. 또 30억위안(한화 약 4890억원)에 달하는 중국 사상 최대의 벌금도 부과했다. 이 사건은 중국내 다국적기업 고위관리자들이 기업과 함께 유죄선고를 받은 초유의 일이었다. GSK 사건으로 많은 다국적기업, 특히 의료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뇌물방지 규제준수 활동을 강화했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 다른기사보기 ▶

노사발전재단이 21일 개최한 2018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포럼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은경 책임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CSR에 대한 법제화 및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 여기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 기업 경영활동에 도덕성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

- 미국은 20년 전인 1977년에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만들었음. 뇌물제공 혐의가 인정되면 제공한 뇌물의 6~7배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법임. 지멘스는 비자금을 조성해 아시아·중동 기업과 공공기관·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해, 지난 2008년 약 8억달러(약 947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맞아 회사존폐 위기에 처하기도 함.
- 노사발전재단이 21일 개최한 2018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포럼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은경 책임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CSR에 대한 법제화 및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 여기는 추세"라고 강조함.

### 아시아 국가의 규제 강화 추세...대응책 마련해야

-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최근 OECD와 같은 글로벌 경제공동체와 NGO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자체적인 반부패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추세임. 미국 또는 영국 등의 은행을 통한 송금과 같이 아주 단순한 계기를 통해 미국·영국의 반부패법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 이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해외반부패법(FCPA)에 의해 역사상 최대 규모 단속활동에서 적발된 10건의 사건 중 8건이 미국기업이 아닌 외국기업과 관련이 있었다"며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업들은 글로벌 반부패 규제준수를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함.

### M&A 시 반부패 규제준수 평가 실사에 포함될 가능성 높아

- 특히 아시아 기업이 다국적기업에 의해 우호적 인수합병(M&A) 대상이 된 경우,

실사절차에서 반부패 규제준수 평가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됨. 미국의 FCPA 와 영국 뇌물수수법에 따라 피인수기업의 범위반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과거 범죄에 대한 승계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때문에 피인수기업이 반부패 규제를 엄격하게 준수했음을 확신할 수 없으면, 인수기업이 거래에서 발을 빼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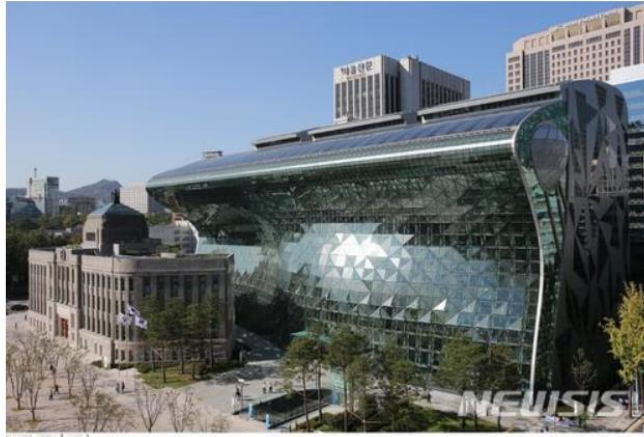
- 또 아시아 기업이 성장 발전함에 따라 현지 또는 해외에서 다국적기업과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글로벌 반부패 규제준수를 요구 받음. 반부패법은 다국적기업에게 그들을 대신해 활동하는 사업파트너가 행한 부패행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이에따라 반부패 규제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은 아시아 기업은,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비해 경쟁에서 훨씬 불리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 **아시아 기업, 효과적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구축해야**

- 이은경 책임연구원은 아시아 기업들이 효과적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조직 구성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사전적·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는 체제) 프로그램을 설계, 이행, 모니터링 할 충분한 인적·재정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함. 또 직원의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뇌물제공도 기업책임이 될 수 있기에, 해외사업을 운영하거나 확장할 때 제 3 자 활동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원문보기](#)

### 3. 서울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부패방지 사업 추진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공공기관, 경제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계각층과 손잡고 청렴문화 풍토 조성에 나선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49개 공공·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출범한다. 서울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비상설 기구다. 서울시장과 민간의장(송준호 흥사단투병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협의회 출범을 알리는 '서울특별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함. 박원순 서울시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49개 참여기관 대표 및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함.
- 참여기관은 ▲부패방지 및 청렴활동 상호 교류협력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각계 및 시민 제안 적극 수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실천 운동 적극 추진 ▲협약기관별 실천과제 마련이행 ▲협약기관별 청렴실천과제 이행사항 상호 공유 등에 협력함.
- 협약 후에는 '민선7기 지방정부의 반부패 전략'이란 주제로 반부패 청렴정책 토론회가 열림. 서울시, 중앙정부, 연구기관 등 반부패 청렴정책 전문가들이 기존 청렴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 방안 등을 모색함.
- [원문보기](#)



#### 4. 대기업 사회공헌 30%나 늘었다

## 대기업 사회공헌 30%나 늘었다

파이낸셜뉴스 | 입력 : 2018.11.19 17:41 | 수정 : 2018.11.19 17:41



지난해 2조7243억원 지출.. 김영란법에 위축 후 기지개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액이 2조7243억원으로 전년 대비 30.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국정농단 사태로 위축됐던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개한 '2018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9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공헌 지출액이 2조7243억원으로 2016년(2조947억원) 대비 30.1% 증가했다.

- 이는 지난해 기업당 평균 사회공헌 지출 규모로는 137억5937만원에 이르는 수치임. 기업 평균 사회공헌 지출액은 2015년 113억8059만원에서 2016년 106억8768만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함.
- 전경련 관계자는 "총액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지출 평균금액도 2016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반등하는 추세"라며 "2016년 탄핵사태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위축됐던 사회공헌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대기업들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평균수명은 9.4년으로 파악됨.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대상은 '아동·청소년'이 41.3%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11.9%), 사회 일반(7.8%), 노인(6.8%), 환경(6.5%) 순이었음.
-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및 지역발전 기여도(29.6%)'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23.0%)' '기업의 미션과 철학(22.5%)' 순으로 답함.
- 전경련 관계자는 "위축됐던 기업 사회공헌 규모가 다시 늘어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노력에 동참하는 등 기업들의 사회공헌 양상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하는 추세"라며 "사회적으로 기업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원문보기](#)



## 5. 더 나은미래가 뽑은 '2019년 제3섹터 키워드'

# 더 나은미래가 뽑은 '2019년 제3섹터 키워드'

조선일보 | 더 나은미래 취재팀

입력 2018.11.27 03:02 | 수정 2018.11.29 12:03

사회문제 해결은 #시민력으로  
소비하면 기부도 되는 #굿 굿즈 다양화  
쓰레기·공해 안 만드는 #제로 문화 퍼질 것

그동안 제3섹터는 정부(제1섹터)와 시장(제2섹터)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익'의 영역을 담당해 왔다. 올해는 제3섹터에 대한 정부 지원이 쏟아지면서 생태계가 크게 확장됐다. 내년에는 양적·질적으로 더욱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장 활동가 100여 명이 주목한 내년 트렌드를 바탕으로 키워드 10개를 골랐다.

### #시민력(力)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 시민력(力)이 중요한 시대가 옴. 정부나 기업은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힘을 빌리고 있음. 시민은 적극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더 나아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도 함. 서울시가 집행하는 시민 참여 예산만 2018년 기준 한 해 7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상황임.

### #굿 굿즈(Good Goods)

스타의 사진을 넣은 머그잔이나 티셔츠 등의 상품을 흔히 '굿즈'라 부름. 최근에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착한 굿즈'를 뜻하는 굿 굿즈에 대한 관심이 확산하고 있음. 환경적으로 좋은 의미를 가졌거나 사회 참여의 의미가 담긴 굿 굿즈를 구매하면 소비자인 동시에 기부자가 되는 흐뭇한 경험을 할 수 있음.

### #블록체인(Blockchain) 기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시도될 전망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최대 장점인 '조작 불가'는 기부 체계의 투명성 확보 과제를 말끔히 해결함.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 플랫폼을 통하면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음. 중국 '엔트 파이낸셜'은 기부자가 기부금 이력과 사용 현황 등을 추적하는 서비스를 내놨고, 미국 스타트업 '벡스트 360'은 블록체인 기술로 커피 수확부터 제조·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추적해 생산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

### #제로(Zero) 문화

줄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예 '제로(0)'로 만들어 환경 보호를 함.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제로 플라스틱' 등의 제로 문화가 내년에는 더욱 확산됨.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에서 추출한 소재가 들어 있지 않은 '애니멀 프리(animal-free)' 화장품과 식품 수요도 늘어날 전망.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무공해)' 차량도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원문보기](#)

# 회원사 안내

## 1. 신규가입회원

11 월 16 일부터 12 월 1 일까지 UNGC 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 본부와 한국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2 곳 입니다.

- 한화건설
-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 2. COP/COE 제출회원

11 월 16 일부터 12 월 1 일까지 6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SK 이노베이션
- 포스코에너지
- 경기도시공사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 한국협회에 동시 가입한 회원들은 한국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연회비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확산에 사용됩니다.

### 3. 2018 년 연회비 납부 안내

- 4/4 분기 연회비 납부 예정 기업 (납부 기한: 2018 년 12 월 28 일까지)

※ 청구서 재발행을 원하시면 협회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삼덕통상, 기아자동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사)유엔한국협회, (주)아진트랜스, 스완커뮤니케이션,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 울산항만공사, 씨엔커뮤니케이션, (주)에프엠브이디, 한국인권재단,  
한국투명성기구,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진해장애인복지관,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한화건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한국체육산업개발, 에스오일, LG 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티비에이치글로벌, 국민건강보험공단, 태광실업, 한국남부발전, (주)제씨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술등록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열매나눔재단, 한국가스공사, SK 이노베이션, KT estate, (주)나인, (주)서스틴베스트

###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http://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